

國家儀禮를 통해 본 新羅 中代 都城의 空間構造

여 호 규(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사학전공 조교수)

1. 머리말
2. 中代 都城의 공간범위와 구획단위
 - 1) 도성의 공간범위
 - 2) 도로망과 구획단위
3. 王宮과 官衙의 배치양상
 - 1) 王宮의 전각 배치
 - 2) 官衙地區의 설정
4. 國王의 行幸과 典京府
 - 1) 國王의 行幸과 여러 의례공간
 - 2) 大日任典과 典京府의 성격
5. 맺음말

1. 머리말

고대 도성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왕궁, 사원, 관아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이러한 건축물은 단순한 거주공간이나 종교시설이 아니었다. 왕궁은 왕의 거주공간인 동시에 주요 정무를 의결하고 의례를 거행하는 공간이었다. 사원에서도 종교의례뿐 아니라 왕의 위엄을 분식하기 위한 각종 의례가 거행되었다. 관아도 실무 집행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의례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더욱이 신라 도성은 中古期 이래 질서정연한 도로망으로 구획되기 시작하여 中代

에는 중국식 王京·王畿制가 확립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도로망과 왕경·왕기제는 주요 건축물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공간구조망을 연출하는 동시에 도성 전체를 國家儀禮의 場으로 탈바꿈시켰을 것이다. 도성 전체가 왕의 위엄과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분식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도성의 공간구조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그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國家儀禮의 場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종래 연구에서는 도성의 공간구조와 국가의례의 연관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적도나 고고학자료를 분석한 경우에는 도성의 정태적 공간구조를 규명하는데 머무는 경향이 강하였고, 각종 의례나 제사를 분석한 경우에는 국가의례 자체만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주요 건축물의 성격과 위상 그리고 상호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규명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례를 통해 구현되었을 도성의 공간적 위계구조를 해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신라 도성의 독특한 면모 특히 고대 국가의 정치체제와 정치이념이 도성이라는 공간을 통해 구현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國家儀禮의 場이라는 관점에서 신라 도성의 공간구조를 복원하고 그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도성제와 국가의례가 완비된 中代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도성의 공간적 위계구조 및 정치이념의 구현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고대 국가체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나아가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국 도성제의 원형과 전통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中代 都城의 공간범위와 구획단위

1) 도성의 공간범위

《三國史記》지리지에 따르면 新羅 王都의 길이(長)는 3075步, 너비(廣)는 3018步이

며, 행정구역으로는 35리 6부가 있었다고 한다. 이 기록의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지리지 기사가 景德王代 郡縣名 개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점을 상기하면 中代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¹⁾ 위의 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王都의 長廣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록한 사실이다. 이는 新羅 中代人들이 王都의 범위를 長 3075步, 廣 3018步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공간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주분지에서는 王都를 둘러싼 성벽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분지의 외곽에 南山新城을 비롯하여 富山城, 西兄山城, 北兄山城 등을 축조하여 도성을 방어한 것으로 추정된다.²⁾ 문헌상으로도 文武王이 京師의 城郭을 축조하려다가 義湘의 건의로 중단하였다고 한다.³⁾ 이처럼 왕도에 성곽을 축조하지 않았는데 신라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王都의 長廣을 설정하였고, 이를 왕도의 공간범위로 인식할 수 있었을까?⁴⁾

中代 都城의 공간범위와 관련하여 《三國史記》 祭祀志가 주목된다. 祭祀志에 등장하는 제사는 크게 祭日이 정해진 정기제사(五廟祭, 八禮祭, 先農·中農·後農祭, 風伯祭, 雨師祭, 靈星祭), 大·中·小祀로 구분된 山川祭祀, 별도 규정에 의한 비정기제사(4城門祭, 部庭祭, 4川上祭, 日月祭, 五星祭, 祈雨祭, 4大道祭, 壓丘祭·辟氣祭) 등으로 대별된다.⁵⁾ 이 가운데 山川祭祀는 전국의 山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정기제사와 비정기제사는 都城 일대가 祭場이라는 점에서 도성의 범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예상된다.

1) 金泰植, 1995 <三國史記 地理志 新羅條의 史料의 檢討>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80-186쪽

2) 민덕식, 1987 <신라왕경의 방비에 관한 고찰> 《사학연구》 39

박방룡, 1992 <신라왕도의 수비> 《신라문화》 19

3) 《三國遺事》 紀異2 文虎王法敏초

4) 《三國史記》 지리지에 기록된 王都 長廣의 규모는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는데, 尹武炳은 周尺(1尺=19.91cm) 6尺1步를 적용하여 길이 3670m, 너비 3620m로 추산하였다(尹武炳, 1972 <역사도시 경주의 보존에 대한 조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대한 연구》 (1) 과학기술처, 131쪽). 閔德植은 唐尺(1尺=29.4cm) 6尺1步를 적용하여 길이 5424m, 너비 5323m로 추산한 다음 실제로는 사방 5600m(東魏尺 16000척)이었다고 상정하였다(閔德植, 1986 <신라왕경의 도시 설계와 운영에 관한 고찰> 《백산학보》 33, 10~11쪽). 禹成勳은 周尺(1尺=19.91cm) 8尺1步制의 100步를 단위로 坊을 구획하였다고 이해하였다(禹成勳, 1997 <신라 왕경 경주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06~108쪽). 그렇지만 당시 尺度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리지 기사만을 근거로 中代 도성의 규모나 공간범위를 추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5) 羅喜羅, 1999 <新羅의 國家 및 王室 祖上祭祀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6-49쪽;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9-68쪽

〈표 1〉 《三國史記》 祭祀志 신라 정기제사의 祭日과 祭場 비교

祭祀名	祭 日			祭 場		
	新羅 祭祀志	貞觀禮	開元禮	新羅 祭祀志	貞觀禮	開元禮
八禮祭	十二月寅日	季冬寅日	季冬臘日(辰日)	新城北門	南郊	南郊
先農祭	立春後亥日	孟春吉亥	孟春吉亥	明活城南熊殺谷	藉田	藉田
中農祭	立夏後亥日	없음	없음	新城北門	없음	없음
後農祭	立秋後亥日	없음	없음	蒜原	없음	없음
風伯祭	立春後丑日	立春後丑日	立春後丑日	犬首谷門	國城東北	國城東北
雨師祭	立夏後申日	立夏後申日	立夏後申日	卓渚	國城西南	國城西南
靈星祭	立秋後辰日	立秋後辰日	立秋後辰日	本彼遊村	國城東南	國城東南

〈표 1〉에서 보듯이 신라 風伯祭, 雨師祭, 靈星祭의 祭日은 唐 貞觀禮 및 開元禮와 동일하지만,⁶⁾ 開元禮가 제정되면서 祭日이 바뀐 八禮祭는 貞觀禮에 따르고 있다. 이는 唐의 貞觀禮를 준용하여 祭日을 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제사지의 정기제사는 神文王代 唐에서 들여온 ‘吉凶要禮’⁷⁾ 곧 정관례를 준용하여 정비한 다음, 개정된 개원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개원례는 726년(開元 14년: 聖德王 25) 편찬되어 732년 반포되었으므로 정기제사 규정은 신문왕~성덕왕대 곧 7세기 말~8세기 초에 성립되었다고 추정된다.⁸⁾

따라서 정기제사의 祭場이 도성의 범위와 관련된다면, 이를 통해 신라 중대인들이 설정하고 또 인식하고 있던 도성의 공간범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에서 보듯이 唐의 정관례나 개원례에서 풍백제, 우사제, 영성제의 祭場은 ‘國城’을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들 제장이 國城의 가장자리 또는 외곽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제장의 안쪽 공간은 國城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八禮祭의 제장은 ‘南郊’이고, 先農祭의 제장도 예제상 南郊에 설치된 ‘藉田’인데,⁹⁾ 남교 역시 국성의 남쪽 외곽에 해당한다. 唐禮의 주요 제장은 국성 곧 도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것

6) 辛鍾遠, 1992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史, 91쪽

7) 《三國史記》 新羅本紀8 神文王 6년 정월

8) 羅喜羅, 1999 앞의 논문, 45~46쪽 ; 2003 앞의 책, 63~64쪽

9) 《通典》 권46 吉禮5 藉田조 및 《唐會要》 권10하 藉田조

실제 隋의 藉田은 國南 14리 啓夏門 바깥에 있었다(《隋書》 禮儀志2, 144쪽).

이다.

신라 제장의 위치를 비정하여 보면(〈지도 1〉 참조),¹⁰⁾ 八禮祭의 제장인 신성북문은 唐禮의 南郊와 마찬가지로 도성 남쪽에 해당한다. 風伯祭의 제장인 犬首谷門은 川上祭도 지냈다는 점에서¹¹⁾ 지형상 ‘谷’ 이면서 ‘川’ 이 인접하여 있고 城門이 위치한 곳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중국대륙 동쪽의 岱山(泰山)에 대비된다는 점에서¹²⁾ 경주분지 동쪽으로 비정된다. 경주분지 동쪽에서 ‘谷’ 과 ‘川’ 이 있으면서 泰山에 비유될 만한 곳으로는 明活山~小金剛山の 北川 협곡 입구가 있는데, 唐 風伯祭의 제장인 ‘國城 東北’ 처럼 도성 동북쪽에 해당한다.¹³⁾

雨師祭의 제장인 ‘卓渚’ 는 4大道祭 가운데 서쪽 제장인 ‘渚樹’ 와 관련된 명칭이다.¹⁴⁾ ‘渚’ 는 물길이 갈라지는 곳이나 모래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형은 西川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 더욱이 서남쪽 모량천·서천 및 남천·서천 합류지점 부근에 이러한 지형이 많으며, 鬼橋址 등 교량도 발견되었다.¹⁵⁾ 이는 이 일대가 ‘渚’ 의 지형 이면서 大道祭를 지낼 만한 주요 통로였음을 의미한다. 雨師祭의 제장인 ‘卓渚’ 도 唐制와 마찬가지로 도성 서남쪽에 설정하였던 것이다. 靈星祭의 제장인 ‘本彼遊村’ 은 中代에 本彼部가 위치하였던 月城 동남~狼山 일대 가운데 狼山 南麓의 神遊林(四天王寺址) 부근으로 비정된다.¹⁶⁾ 靈星祭의 제장도 唐制를 준용하여 도성 동남쪽에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라 중대의 제장은 唐禮와 마찬가지로 國城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唐禮를 준용하여 祀典을 재정비하던 7세기 말~8세기 초경 ‘도성의 공간범위’ 를 인식하는 증거인 國城 관념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先農·中農·後農祭의 제장이 주목된다. 先農祭는 본래 天子는 南

10) 아래 祭場의 위치 비정에 관한 내용은 余昊奎, 2002 《新羅 都城의 空間構成과 王京制의 성립과정》 《서울학연구》 18, 61~67쪽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1) 《三國史記》 祭祀志: “四川上祭 一犬首, 二文熱林, 三青淵, 四樓樹.”

12) 《東國李相國集》 권5 ‘次韻吳東閣世文呈詒院諸學士三百韻詩’ 의 ‘犬首侔東岱 蛟川傲左伊’

13) 《東國李相國集》 세주에 인용된 《新羅記》에 따르면 고려시기도 ‘犬首祠’ 가 전해지고 있었다.

14) 《三國史記》 祭祀志: “四大道祭 東古里, 南簷并樹, 西渚樹, 北活併岐.”

15) 藤島玄治郎, 1930 《朝鮮建築史論》 (1,2) 《建築雜誌》; 1969 《朝鮮建築史論》 (경인문화사 복각본), 103쪽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0 《推定鬼橋址發掘調査》 《年報》 11

16)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 497쪽; 辛鍾遠, 1992 앞의 책, 91쪽

〈지도 1〉 신라 중대 도성의 공간범위와 祭場



郊의 藉田, 諸侯는 東郊에서 거행하였다.¹⁷⁾ 그런데 唐太宗은 東郊에서 致祭하였고,¹⁸⁾ 唐의 다른 황제들도 東郊에서 先農祭와 藉田禮를 거행하였다.¹⁹⁾ 신라 先農祭의 제장인 ‘明活城南熊殺谷’도 도성 동쪽에 해당한다. 신라가 中國 禮制에 의거하여 諸侯國의 입장에서 제장을 설정하였는지 唐의 사례를 준용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경우이든 ‘明活城南熊殺谷’이 東郊로 설정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中農祭의 제장인 新城北門은 도성 남쪽으로서 ‘南郊’가 제장인 八禮祭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先農祭를 도성 동쪽, 中農祭를 남쪽에서 지냈다면, 後農祭의 제장인 棘原은 도성 서쪽일 가능성이 높다. 선농·중농·후농제의 祭日은 立春, 立夏, 立秋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다. 唐습에 따르면 입춘, 입하, 입추, 입동에는 동교, 남교, 서교, 북교에서 각각 四方帝神(靑帝·赤帝·白帝·黑帝)을 致祭하였다.²⁰⁾ 따라서 신라 선농·중농·후농의 祭日이 입춘, 입하, 입추라는 절기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고 선농·중농의 제장이 唐습의 東郊·南郊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後農의 제장인 ‘棘原’도 도성 서쪽 곧 西郊에 설정되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祀典을 재정비하던 7세기 말~8세기 초경, 경주분지 가장자리를 따라 四郊가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도성의 공간범위’를 인식하는 준거인 國城 관념뿐 아니라 도성의 공간범위를 제도적으로 한정하는 ‘四郊制’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중고기의 6부왕경이 현재의 경주시 전역에 걸쳐 있었음을 상기하면,²¹⁾ 中代 초에 왕경지역이 경주분지 내부로 축소됨과 아울러 공간범위도 명확하게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 《通典》권46 吉禮5 藉田조 및 《唐會要》권10하 藉田조

18) 《舊唐書》권24 禮儀志4 太宗 貞觀3년 4월조

19) 《舊唐書》권5 高宗하 儀鳳2년 춘정월; 권24 禮儀志4 開元23년 춘정월 및 乾元2년 춘정월

20) 《唐令拾遺》祀令 제8 神祇令 제6. 실제 開元26년(738년) 春正月 丁丑에 玄宗이 東郊에서 春氣를 親迎하고 靑帝에게 致祭한 사실이 확인된다(《舊唐書》本紀제9 玄宗下 開元26년 春正月조).

21) 李鍾旭, 1980 <신라 상고시대의 육촌과 육부> 《진단학보》 49

田中俊明, 1992 <新羅における王京の成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0

전덕재, 1998 <신라 6부 명칭의 어의와 그 위치> 《경주문화연구》 창간호

2) 도로망과 구획단위

그러면 성곽도 축조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四郊를 설정하고, 國城 관념을 확립할 수 있었을까?

《三國史記》지리지에는 都城의 長廣과 함께 35里 6部라는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다. 下代의 상황을 반영하는 《三國遺事》紀異1 辰韓조에는 ‘京中에 178,936戶, 1,360坊, 55里, 35金入宅’이 있었고, 《三國遺事》避隱8 念佛師조에는 ‘城中에 360坊, 17萬戶’가 있었다고 한다. 《삼국사기》지리지와 비교하면 里의 수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中代 이후 도성의 공간범위가 확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²²⁾ 이와 함께 주목되는 사실은 里보다 하위 공간단위로 坊이 설정된 점이다. 진한조와 피은조에 기재된 坊의 수가 다르지만, 어쨌든 里보다 하위 공간단위로 坊이 존재하였음은 명확하다.

중국에서 ‘坊’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명칭에 사용되다가, 北魏代부터 도성을 질서정연한 도로망으로 구획하고 각 구역을 담장으로 두르면서 ‘里’의 대칭으로 사용하였다.²³⁾ 따라서 里보다 하위단위로 ‘坊’이 설정되었다면, 신라 도성도 질서정연한 도로망으로 구획되고, 각 구역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예상된다. 20세기 전반 경주분지에 산재하였던 격자형 도로망과 석축열, 최근 발견된 도로유구와 담장 기초석렬²⁴⁾ 등은 이를 반영한다. 신라 도성의 坊도 질서정연한 도로망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행정구역인 里는 이를 기초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京中’·‘城中’, 《삼국사기》지리지의 ‘王都’ 등은 질서정연한 도로망으로 구획된 도시 계획구역을 지칭한다고 여겨진다.

<지도 1>에서 보듯이 질서정연한 격자형 도로망으로 구획된 도시계획구역은 여러 祭場의 안쪽에서만 확인된다. 성곽을 축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祭場의 안쪽이라는

22) 全德在, 1998 앞의 글

23) 朴漢濟, 1990 《北魏 洛陽社會와 胡漢體制 - 都城區劃과 住民分布를 중심으로》 《태고고전연구》 6
楊 寬, 1993 《封閉式的里制和坊制》 《中國古代都城制度史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4) 구황교 4거리~동해남부선 철로구간에서는 남북도로 1010m 및 담장기초석렬 880m를 확인하였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6 《王京地區內 가스관埋設地 발굴조사보고서》).

공간범위만 질서정연한 도로망으로 구획하였다면, 경관상 주변 지역과 명확히 구분 되었을 것이다. 지적도를 통한 연구성과를 종합하면,²⁵⁾ 이러한 도시계획구역은 남북으로 황성동~포석정의 6.5km, 동서로는 5.3~5.5km 구간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삼국사기》지리지 기사에 高麗尺 5尺1步制(1척=35.5~36.2cm, 1보=1.78~1.81m)를 적용하면 중대 도성의 길이(3075步)는 5473.5~5565.8m, 너비(3018步)는 5372.0~5462.6m라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지적도상에서 확인한 도시계획구역 범위와 대략 일치한다.

그러므로 질서정연한 격자형 도로망이 도성의 공간범위를 설정하는 외형적인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도시계획구역의 가장자리나 외곽에 唐禮를 준용한 중국식 祭場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致祭함으로써 이러한 공간범위를 國城으로 인식하는 관념을 확립할 수 있었다. 비록 성곽을 축조하지 않았지만 ‘질서정연한 도로망으로 구획된 도시계획구역’이라는 외형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경주분지 외곽에 위치한 불교사원의 거리를 ‘京城’을 기점으로 명기할 수 있었다.²⁶⁾ 또한 望德寺 동쪽의 효소왕릉이나²⁷⁾ 師子寺 북쪽의 효공왕릉이²⁸⁾ 도로망 바깥에 위치한 것도 도성 외부에 왕릉을 조영하던 ‘國城’ 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성 내부 공간은 격자형 도로망으로 구획된 ‘坊’을 기초로 ‘里’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격자형 도로망으로 구획된 구역을 ‘里坊區劃’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²⁹⁾ 里坊구획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적도를 통한 연구성과와 왕경지구에 대한 발굴성과를 종합하면 1구역의 규모는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동서

25) 藤島亥治郎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도 복원안을 제시하였는데, 본고에서는 禹成勳, 1997 <신라 왕경 경주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복원도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현재 지도는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 1997 <경주유적지도>의 1/5천 지형도를 사용하였다.

26) 《三國遺事》권3 塔像4 南月山조의 ‘寺在京城東南二十許里’, 같은 책 鑿藏寺彌陀殿조의 ‘京城之東北二十許里’, 권4 義解5 明朗神印조의 ‘新羅京城東南二十餘里’ 등과 같이 성곽을 축조하지 않았음에도 ‘京城’을 기준으로 각 寺刹의 위치와 거리를 표기하고 있다(田中俊明, 1992 <新羅における王京の成立>《朝鮮史研究會論文集》30)

27) 《三國史記》新羅本紀8 孝昭王 11년 7월조

28) 《三國史記》新羅本紀12 高宗왕 16년

29) 都城의 가로구획은 條里制, 條坊制, 坊制, 坊里制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다. 條里制나 條坊制라는 명칭은 동서도로를 ‘條’ 남북도로를 ‘里’로 명명하고 몇 條, 몇 里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가로구획을 명명한 일본 고대 도성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坊制라는 명칭은 ‘坊’과 ‘里’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제기한 개념인데, 중국 도성에서는 ‘坊’과 ‘里’가 동일하지만 신라 도성에서는 ‘坊’을 기초로 ‘里’가 설정되었다. 따라서 ‘里坊制’가 신라 도성의 공간구조적 특성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160~165m, 남북 140~145m인 장방형임을 알 수 있다.³⁰⁾ 이를 35~36cm 범위의 高麗尺으로 환산하면 동서 450척, 남북 400척이라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고, 고려 척 5척1보제를 적용하면 동서 90보, 남북 80보로 추산된다.

지적도상 동서방향으로 서천~보문사지에서 30구간의 里坊구획이 확인되며, 보문사지~명활산에도 3구간 정도 설정할 공간이 남아 있다. 남북방향으로는 용강동~사천왕사지에 34~35구간, 사천왕사지~포석정에 9구간 등 43~44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지적도상의 里坊구획 간격(동서간격 90步와 남북간격 80步)을 지리지 기사에 대입하면 길이방향으로 34.1(3075보/90보) 또는 38.4(3075보/80보) 구간, 너비방향으로 33.5(3018보/90보) 또는 37.7(3018보/80보) 구간을 얻을 수 있다. 동서방향으로는 양자가 대략 비슷한 반면, 남북방향으로는 지적도상의 구간수가 지리지 기록의 추정치보다 많은데 이는 중대 이후 도성의 공간확대와 관련된다.³¹⁾

이상과 같이 중대 도성의 공간범위는 질서정연한 도로망으로 구획된 도시계획구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삼국사기》지리지에서 王都의 長·廣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기한 것은 비록 성곽을 축조하지 않았지만 질서정연한 도로망으로 구획되어 주변 지역과 명확하게 구분되고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성 전체가 질서정연한 도로망으로 구획되었다는 점에서 왕궁, 관아, 사원 등 주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는 里坊구획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다고 추정된다. 실제 진흥왕대에 창건된 皇龍寺는 里坊구획 4개,³²⁾ 선덕여왕대에 창건된 靈妙寺址(전흥륜사지)와 분황사지는 里坊구획 1개를³³⁾ 각각 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동시기 일본 도성의 사례를 통해 볼 때,³⁴⁾ 35급입택을 비롯한 최상층 귀족, 중하급 관

30) 다만 최근 발굴된 東川洞 일대 里坊區劃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동서 간격은 160m였지만, 남북 간격은 125m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좁은 편이었다(申昌秀, 2002 《新羅의 王京》〈강좌 한국고대사〉 제7권(총과도 도시)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4쪽).

31) 이상의 내용은 余昊奎, 2002 앞의 글, 38~47쪽을 요약한 것이다.

32) 신창수, 1995 〈중고기 王京의 寺刹과 都市計劃〉《新羅王京研究》, 136~137쪽

33) 金秉模, 1984 〈신라 왕경의 도시계획〉《역사도시경주》열화당, 131쪽

34) 고대 일본 도성도 질서정연한 格子型 도로망으로 구획하였는데, 특히 冠位를 기준으로 官人의 택지를 班給하던 규정이 남아 있다(山下信一郎, 1998 〈宅地の班給と賣買〉《古代都市の構造と展開》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古代都城制研究集會第3回報告集, 185~216쪽). 7세기 후반 藤原京에서는 右大臣 4町, 直廣貳 以上 2町, 大參 以下 1町의 宅地를 각각 반급하였고 勤 以下 無位에 이르는 자에게는 戶口에 따라 上戶 1町, 中戶 1/2町, 下戶 1/4町을 반급하였고, 王 등도에 준하였다(《日本書紀》持統5년(691) 12월 乙巳조). 8세기 전반 難波京에서는 3위 이상은 1町 이하, 5위 이상은

인, 일반민 등의 택지도 里坊區劃 또는 이를 세분한 일정한 면적을 단위로 분급하였다고 추정된다.³⁵⁾

이와 같이 주요 건축물이나 주택은 里坊구획을 바탕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서정연한 도로망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도로망은 주요 건축물을 긴밀하게 연계시켜주는 한편, 각 건축물의 규모와 위상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질서정연한 도로망은 도성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었을 뿐 아니라, 각종 건축물과 저택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긴밀한 공간구조망을 연출하는 동시에 이들 상호간의 공간적 위계구조를 표출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중대 도성의 공간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망으로 연계된 주요 건축물의 배치양상 및 이들 상호간의 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王宮과 官衙의 배치양상

1) 王宮의 전각 배치

《삼국사기》지리지에 따르면 신라 도성에는 金城, 月城(在城, 新月城), 滿月城 등 3개의 궁성이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金城의 존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³⁶⁾ 소지마립간 22년(500년)을 하한으로 문헌기록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재하였다 하더라도 중대 이후에는 왕궁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여진다.³⁷⁾

1/2町이하, 6위 이하는 1/4町 이하의 宅地를 발급하였다(《續日本記》天平6년(734년) 9월 辛未조). 또한 8세기 말의 도성이었던 長岡京에 대한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해 도성의 택지가 2町, 1町, 1/2町, 1/4町, 1/8町, 1/16町, 1/32町 등과 같이 일정한 비율로 분할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佐藤信, 1991 <長岡京から平安京へ>《古代を考える 平安の都》吉川弘文館; 1997 《日本古代の宮都と木簡》吉川弘文館, 156쪽).

35) 황룡사지 남측의 S160E190~200 왕경지구에서 발굴된 도로변 출입시설의 간격은 20m로 일정하였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8 <왕경유적 발굴조사>《年報》9, 15~27쪽). 이는 신라 왕도에서도 택지를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6) 김호상, 1997 <신라 왕경의 궁성지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朴方龍, 1998 <新羅 都城 研究>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1~207쪽

37) 《관문성석각》(722년경)에서는 都城을 '金京'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中代에는 金城이라는 명칭이 특정한 왕궁이라는 의미보다 도성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滿月城의 위치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는데, 城東洞 殿廊址說은 이 유적 규모가 동서 225m, 남북 100m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성립하기 곤란하다.³⁸⁾ 이를 제외하면 月城 외에 궁성으로 비정할 만한 유적이 없기 때문에 만월성의 위치를 비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월성 북쪽으로 확장된 宮城을 新月城과 구별하여 滿月城으로 불렀다는 견해가 주목되지만,³⁹⁾ 현재로서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형편이다.

月城은 왕이 거주하는 궁성이라는 의미에서 ‘在城’으로도 불렸는데⁴⁰⁾ 실제 월성에서는 ‘在城 銘’ 기와가 다수 발견되었고, 고고학발굴을 통해 月城 주변에 궁궐이나 관아 건물이 밀집되어 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⁴¹⁾ 이러한 고고학 발굴성과는 月城이 중고기 이래 정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덕여왕 말년 毗曇의 亂이 일어났을 때 王師가 月城에 주둔한 기록,⁴²⁾ 月城에 鼓樓를 세운 기록,⁴³⁾ 在城과 皇龍寺 중간에 大星이 떨어졌다는 기록,⁴⁴⁾ 在城의 鼓樓에 개가 올라가 3일 동안 짓었다는 기록⁴⁵⁾ 등도 中古期~中代에 월성이 중요한 왕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神文王이 感恩寺에 행행하였다가 획득한 대나무로 만든 國寶 萬波息笛을 月城의 天尊庫에 보관하였다고 한다.⁴⁶⁾ 이 天尊庫는 ‘內庫’로도 불렸으며 司庫吏가 5명 이상 배치될 정도로 중요한 창고였다.⁴⁷⁾ 신라 3寶 가운데 하나인 眞平王의 天賜玉帶를 보관하였다는 宮城 南庫도⁴⁸⁾ 天尊庫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무기와 보물 등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던 武庫 또는 太倉은 宮城에 위치하였고,⁴⁹⁾ 일본 고대

38) 《三國史記》 지리지1에 따르면 月城의 둘레는 1023步, 滿月城의 둘레는 1838步로서 滿月城의 규모가 월성보다 훨씬 커다.

39) 尹武炳, 1972 앞의 글, 127쪽 및 박방룡, 1998 앞의 논문, 207-209쪽

40) 《三國史記》地理志 1: “婆娑王二十二年 於金城東南築城 號月城 或號在城 周一千二十三步.”

41)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90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 I

金洛中, 1998 《신라 월성의 성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2~1994 《1992~1994년도 월성해자 발굴조사》 《年報》 3~5

42) 《三國史記》列傳1 金庾信(상)

43) 《三國史記》新羅本紀5 무열왕 2년조

44) 《三國史記》新羅本紀7 문무왕 13년 1월조

45) 《三國史記》新羅本紀8 성덕왕 35년조

46) 《三國遺事》紀異2 萬波息笛조

47) 《三國遺事》권3 塔像4 栢栗寺조

48) 《三國史記》新羅本紀12 경명왕 5년 1월조

49) 楊寬, 1993 《中國古代都城制度史研究》上海古籍出版社, 112쪽, 117쪽, 141쪽 및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97 《都城における行政機構の成立と展開》, 27쪽의 도면 참조.

도성에서도 兵庫를 왕궁에 설치하였다.⁵⁰⁾ 따라서 萬波息笛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보물을 보관하던 天尊庫가 위치한 月城이야말로 중대의 실질적인 正宮이었다고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文武王의 庶弟인 車得公 관련 설화가 주목된다.⁵¹⁾ 車得公은 武珍州의 安吉에게 자신의 집이 皇龍寺·皇聖寺⁵²⁾ 사이에 위치하였다고 하였다. 그 뒤 安吉이 상경하여 宮城 西門인 歸正門을 통해 車得公을 만난 것에서 보듯이 車得公의 집은 王宮에 있었고, 이 王宮은 安吉에게 길을 가르쳐준 老翁이 ‘大內’로 표현하였듯이 당시의 正宮으로 인식되었다.⁵³⁾ 그리고 車得公이 활동하던 문무왕대에 月城의 異稱인 ‘在城’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車得公이 거주하였던 ‘大內’는 月城에 해당한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경덕왕(24년)이 歸正門의 門樓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다가 忠談師를 만난 것에서 보듯이 月城은 中代 동안 正宮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다. 한편 車得公은 지방을 둘러보고 상경한 다음 冢宰에 취임하여 국정전반을 관장하였는데, 安吉이 방문하였을 당시 거득공이 宮城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月城에 국정 전반을 관장하던 정무기구 내지 전각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으로 보아 신라 중대의 正宮은 月城이었으며, 월성 내부에는 국정수행과 관련된 여러 전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표 2〉는 城門과 樓閣를 제외하고 중대~하대 왕궁의 전각 관련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 平議殿이나 月正堂은 下代에 처음 나오며, 특히 平議殿은 현강왕대부터 政廳으로 사용되었으므로 中代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제외하면 중대 왕궁의 주요 전각으로 正殿, 朝元殿, 崇禮殿, 講武殿, 臨海殿 등을 들 수 있다.

가뭇이 들면 ‘避正殿, 感常膳’한 기록으로 보아 正殿은 국왕이 일상 정무를 처리하던 장소로서 후대의 便殿에 해당된다고 여겨진다.⁵⁵⁾ 朝元殿에서는 진덕여왕대 賀正禮를 거행한 이래, 경덕왕대에는 해가 2개 나타나자 祭壇을 설치하였으며, 下代에는

50) 987년 平安京의 兵庫寮에 화재가 나서 戎具納所 9間, 御倉町屋 2宇가 燒失되었다고 하는데(《扶桑略記》永延1년 11월 17일;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97 앞의 책, 182쪽 재인용), 왕궁의 兵庫에는 무기뿐 아니라 주요 보물을 보관하던 御倉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1) 《三國遺事》 권2 紀異2 文虎王法敏조

52) 월성 동남 九皇洞옥다리들寺址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朴方龍, 1998 앞의 논문, 154~155쪽).

53) 《三國遺事》 권5 感通7 正秀師求水女조에 왕이 거주하던 왕궁을 ‘大內’로 표현하였다.

54) 비교에 전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三國史記》新羅本紀에서 발췌한 것이다.

55) 李丙燾, 1975 〈古代南堂考〉《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623-624쪽

(표 2) 新羅 中代~下代 왕궁 전각 관련기사

전각명칭	연 대	기사 내용	성 격	비 고
正殿	진평왕 7년 3월	早, 王避正殿, 減常膳, 御南堂親錄囚.		
	흥덕왕 7년	春夏旱, 赤地. 王避正殿, 減常膳, 赦内外獄.		
朝元殿	진덕왕 5년 1월	春正月朔, 王御朝元殿, 受百官正賀, 賀正之禮始於此.	賀正禮	
	경덕왕 19년 4월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並現, 挾旬不減. 日官奏請緣僧, 作散花功德則可禳. 於是潔壇於朝元殿, 駕幸青陽樓, 望緣僧. 時有月明師, 行于阡陌時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啓.	設壇	<삼국유사> 감통7월명사
	애장왕 7년 3월	日本國使至, 引見朝元殿.	외교사절	
	경문왕 8년 8월	重修朝元殿.		
	현강왕 4년 8월	日本國使至, 王引見於朝元殿.	외교사절	
	효소왕 7년 3월	日本國使至, 王引見於崇禮殿.	외교사절	
崇禮殿	성덕왕 15년	大風拔木飛瓦, 崇禮殿毀.		
	애장왕 8년 2월	王坐崇禮殿觀樂.	觀樂禮	
	현덕왕 6년 3월	宴羣臣於崇禮殿, 樂極, 王鼓琴, 伊滄忠榮起舞.	宴會	
	현강왕	處容郎 望海寺 第四十九憲康大王之代. (중략) 又同禮殿宴時. 地神出舞. 名地伯級干. 語法集云. 于時山神獻舞. 唱歌云. 智理多都波都波等者. 盖言以智理國者. 知而多逃. 都邑將破云謂也. 乃地神山神知國將亡. 故作舞以警之. 國人不悟. 謂爲現瑞. 耽樂滋甚. 故國終亡.	宴會	<삼국유사> 기이2處容郎
	문무왕 17년 3월	觀射於講武殿南門.	觀射禮	
臨海殿	효소왕 6년 9월	宴羣臣於臨海殿.	宴會	
	혜공왕 5년 3월	燕群臣於臨海殿.	宴會	
	애장왕 5년 7월	重修臨海殿.		
	문성왕 9년 2월	重修平議·臨海二殿.		
	현인왕 4년 9월	王會羣臣於臨海殿, 王族膺廉年十五歲預坐焉.	宴會	
	경문왕 7년 1월	重修臨海殿.		
	현강왕 7년 3월	燕羣臣於臨海殿, 酒酣, 上鼓琴, 左右各進歌詞, 極歡而罷.	宴會	
	경순왕 5년 2월	太祖率五十餘騎, (중략) 置宴於臨海殿, 酒酣.	宴會	
平議殿	문성왕 9년 2월	重修平議·臨海二殿.		
	현강왕 3년 4월	始御平議殿聽政.	정무	
月正堂	경문왕 14년 9월	重修月正堂.		

일본의 외교사절을 맞이하는 賓禮를 거행하였다. 崇禮殿에서도 중대에는 일본의 외교사절을 접객하는 빈례를 거행하였으나, 하대에는 주로 饗宴性 儀禮를 거행하게 된다. 朝元殿이 시종일관 공식적인 국가의례를 거행하는 공간이었던 반면, 崇禮殿은 중대에는 공식적인 국가의례를 거행하다가 하대에 饗宴性 儀禮를 거행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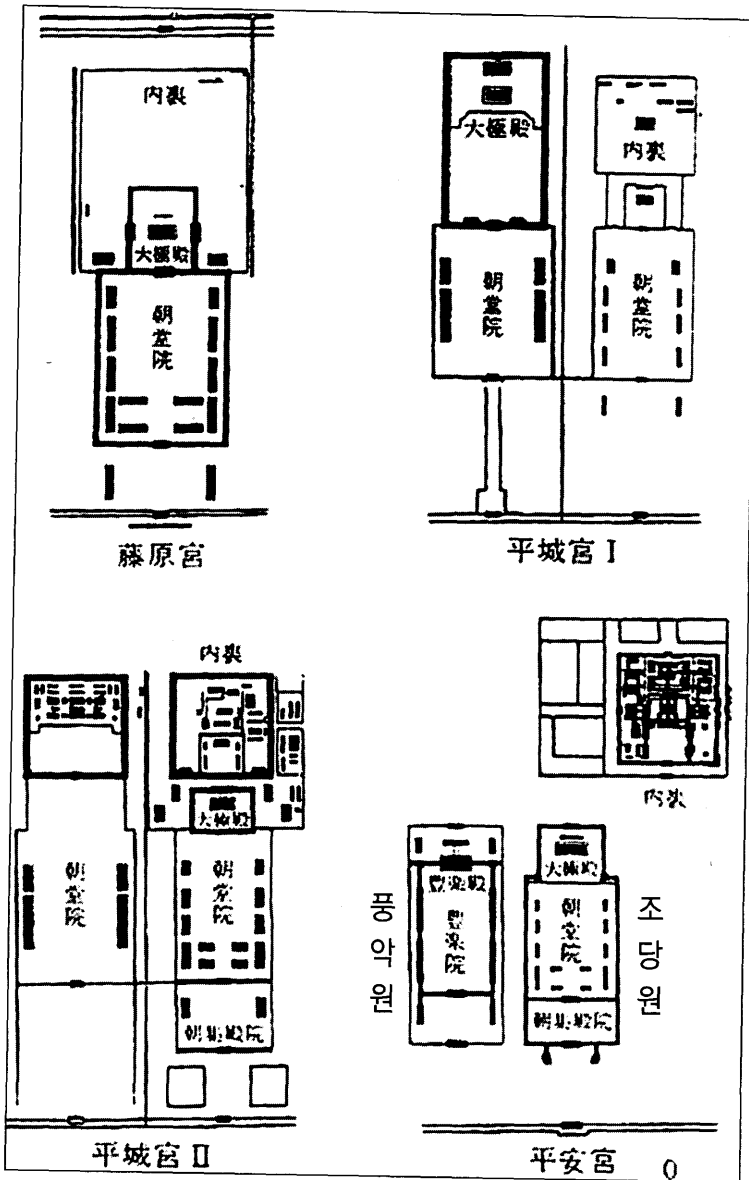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日本 도성의 변천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학계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7세기 후반 藤原京에는 왕궁의 핵심 의례공간인 大極殿-朝堂院이 1개 있었지만, 8세기 전반 平城京에서는 중앙과 동쪽 2개소에 朝堂院이 설정되어 卽位式·賀正禮 등 중요한 의례는 중앙의 大極殿-朝堂院에서 거행하고, 외교사절 접객이나 朝參·朝政 등은 동쪽 조당원에서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 뒤 중앙의 朝堂院은 饗宴의 場으로 전환되고, 大極殿도 동쪽 朝堂院으로 옮겨져 이곳에서 중요한 국가의례를 거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8세기 말 平安京으로 이어져 동쪽에 공식적인 의례공간인 大極殿-八省院(朝堂院)을, 중앙에는 항상적인 饗宴 장소로 豐樂院을 배치하게 된다(〈그림 1〉 참조).⁵⁶⁾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면 신라 왕궁에서도 중대에는 국가의례의 중요도에 따라 朝元殿과 崇禮殿이라는 2개의 공식적 의례공간을 배치하였다가, 하대에 崇禮殿은 饗宴性 儀禮用 전각으로 변질되고 공식적인 국가의례는 주로 朝元殿에서 거행하였다고 추정된다. 朝元殿은 진덕여왕대 賀正禮를 거행한 이래 시종일관 공식적 국가의례를 거행하던 핵심 공간으로서 唐 長安城 太極宮의 중심 전각인 太極殿이나 일본 고대 도성의 大極殿에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國家儀禮의 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왕궁의 여러 전각은 공식적인 국가의례 공간인 朝元殿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평왕 7년 가뭄이 들자 正殿을 피하고 常膳을 줄이고 南堂에 나아

56) 橋本義則, 1995 《朝政·朝儀の展開》(《日本の古代》7 中央公論社
金子裕之, 1996 《儀式と執務の場-朝堂院》(《古都發掘》岩波書店, 140-144쪽
金子裕之, 1996 《朝堂院の關する諸問題》(《古代都市の儀禮空間と構造》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古代都城制研究集會 第3回報告集, 269-272쪽
佐藤信, 1997 《宮都と儀禮》(《日本古代の宮都と木簡》吉川弘文館, 3-9쪽
林部均, 2001 《古代宮都形成過程の研究》青木書店, 339-344쪽

〈그림 1〉 일본 藤原宮, 平城宮, 平安宮의 평면구조



가 죄수를 친국하였다’는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록에서 宮南에 위치한 南堂과⁵⁷⁾ 正殿은 별도 공간에 존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상고기 이래 群臣會議,⁵⁸⁾ 養老宴會⁵⁹⁾ 등 정무를 의결하고 의례를 거행하던 핵심 政廳인 南堂은⁶⁰⁾ 이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진덕왕대부터 朝元殿 등의 전각이 등장한다. 장소가 일치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南堂이 수행하던 의례공간의 역할을 朝元殿 등이 수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下代에도 朝元殿과 正殿이 별도로 존재한 사실과 함께 황제(천황)가 일상 업무를 처리하던 兩儀殿(內裏 正殿)이 太極殿(大極殿) 북쪽에 위치한 唐(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하면,⁶¹⁾ 신라 중대 왕궁에도 朝元殿-正殿이 앞뒤로 나란히 배치되었다고 추정된다(〈그림 3〉 참조).⁶²⁾

講武殿은 武藝를 연마하던 장소로 추정되는데, 문무왕 17년 講武殿 南門에서 觀射한 것에서 보듯이 무예와 관련된 儀禮를 거행하였다. 또한 월성 동북의 안압지로 비정되는 臨海殿은 〈표 2〉에서 보듯이 중대 이래 시종일관 宴會 장소로 사용되었다. 다만 일본 고대의 경우 王宮·國府·郡家 등에서 중요한 의례를 거행한 다음 반드시 宴會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군신간의 지배·복속관계를 재확인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⁶³⁾ 臨海殿도 의례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경순왕 5년 고려 태조가 신라 왕경을 방문하였을 때에 임해전에서 연회를 개최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전각 외에 樓閣와 城門이 있다. 樓閣으로는 月城(在城) 鼓樓, 望恩樓, 鳴鶴樓, 月上樓, 靑陽樓 등이 있었는데, 청양루와⁶⁴⁾ 월상루는⁶⁵⁾ 원거리를 조망하거나 민정을 시찰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城門으로는 서문인 歸正門을 비롯하여 武平門,

57) 《三國史記》新羅本紀2 점해왕 3년 7월조: “作南堂於宮南(南堂或云都堂).”

58) 《三國史記》新羅本紀2 미추왕 7년: “春夏不雨, 會群臣於南堂, 親問政刑得失.”

59) 《三國史記》新羅本紀3 눌지왕 7년夏四月: “養老於南堂, 王親執食, 賜穀帛有差.”

60) 李丙巖, 1975 《古代南堂考》《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623-636쪽

61) 楊寬, 1993 《唐代長安·洛陽의 ‘城’·‘郭’ 佈局》 앞의 책, 169-176쪽

62) 최근 皇龍寺 가람배치를 분석하여 新羅의 宮闕構造가 남북조시기 중국처럼 太極殿을 중심으로 하는 東西堂制였다고 주장한 견해가 제시되어 주목되는데(梁正錫, 2002 《新羅 宮闕構造에 대한 試論》《韓國史研究》 119), 朝元殿 등 현전하는 殿閣名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63) 佐藤信, 1997 《宮都·國府·郡家》《日本古代の宮都と木簡》 吉川弘文館, 3-31쪽

64) 《三國遺事》感通7 월명사 도솔가

65) 《三國史記》新羅本紀11 현강왕 6년 9월조

遵禮門, 臨海門·仁化門, 玄德門, 北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武平門에서 觀射禮와 赦宥禮,⁶⁶⁾ 遵禮門에서 觀射禮,⁶⁷⁾ 北門에서 納妃禮⁶⁸⁾ 등을 거행하였고, 서문인 歸正門 門樓에서는 민정을 시찰한 사례가⁶⁹⁾ 확인된다. 의례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문이 누각보다 중요시되었는데, 문무왕대에 城門의 額號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⁷⁰⁾ 이와 연관된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秦漢 이래 5행사상에 의거하여 도성의 성문 명칭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참조하면, 仁化門은 동문, 遵禮門은 남문, 武平門과 玄德門은 북문 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중대 왕궁에는 태자의 거처인 東宮이 별도 공간에 독립 건축물로 배치되어 있었고,⁷¹⁾ 동궁 관아도 별도로 설치되었다.⁷²⁾ 이는 태자제의 확립과 관련하여⁷³⁾ 주목되는 사실이다. 헌덕왕이 후사가 없자 同母弟 秀宗을 副君(儲貳)으로 삼아 月池宮에 입거시킨 사실에서⁷⁴⁾ 보듯이 태자로 책봉되면 東宮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덕왕의 태후가 永明新宮으로 移居하였다거나⁷⁵⁾ 원성왕 즉위 후에 宣德王의 具足王后가 外宮으로 출거하였다는⁷⁶⁾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왕족의 거처 공간인 內殿 전각도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치하여 거주자를 정하고, 자격 조건을 상실하면 별도의 왕궁으로 移居하는 원칙이 확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의 실질적 정궁인 月城 이외에 永明新宮, 永昌宮,⁷⁷⁾ 善天宮,⁷⁸⁾ 北宮⁷⁹⁾ 등 도성에 산재한 소규모 왕궁도⁸⁰⁾ 일정한 원칙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

66) 《三國史記》新羅本紀10 흥덕왕 9년 9월조 및 新羅本紀11 경문왕 1년 3월조

67) 《三國史記》新羅本紀11 헌강왕 5년 10월

68) 《三國史記》新羅本紀8 신문왕 3년 2월조

69) 《三國遺事》紀異2 경덕왕조

70) 《三國史記》新羅本紀6 문무왕 19년 8월: “始定內外諸門額號.”

71) 《三國史記》新羅本紀 文무왕 19년 8월조, 경덕왕 4년조, 애장왕 5년 7월

72) 《三國史記》新羅本紀9 경덕왕 11년 8월

73) 金昌謙, 1993 〈新羅時代 太子制度의 性格〉《韓國上古史學報》13

74) 《三國史記》新羅本紀10 헌덕왕 14년 1월조 및 列傳5 祿眞전

75) 《三國史記》新羅本紀9 경덕왕 7년 8월조

76) 《三國史記》新羅本紀10 원성왕 1년 3월조

77) 《三國史記》新羅本紀9 경덕왕 16년 7월조

78) 《三國史記》新羅本紀9 효성왕 3년 1월조

79) 《三國史記》新羅本紀11 진성왕 11년 12월조 및 《三國遺事》紀異2 혜공왕조

80) 《三國史記》職官志 중 內省조에 따르면 內省 산하에는 敷宮典, 靑淵宮典, 夫泉宮典 등 여러 왕궁을 관리하는 관서가 소속되어 있다.

여 조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⁸¹⁾

이상과 같이 중대 도성의 실질적 정궁은 月城이었고, 朝元殿, 崇禮殿, 臨海殿 등 여러 전각에서는 賀正式, 卽位式, 외국사절 접객, 연회 등 각종 의례가 거행되었다. 아울러 城門에서 觀射禮와 赦宥禮를 거행하였고, 樓閣에서 민정을 시찰하기도 하였다. 왕궁 전체가 거대한 의례공간이었던 것이다.⁸²⁾ 그리고 당의 長安城이나 일본의 平城京·平安京처럼 핵심적 의례공간인 朝元殿(太極殿·大極殿)과 국왕의 집무장소인 正殿(兩儀殿·內裏正殿)이 앞뒤로 나란히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전각은 朝元殿-正殿을 중심으로 일정한 원칙 아래 배치되고,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규모와 형태로 조영되었다고 추정된다. 중대 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공간은 정궁인 月城이었고, 그 가운데 朝元殿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례를 거행하였던 것이다.

2) 官衙地區의 설정

왕궁 다음 중요한 건축물은 각종 정무를 집행하던 관아일 것이다. 신라는 6세기 초 律令을 반포한 이래 정치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중고기 말인 진덕왕대에 唐의 六典組織에 준하는 관서체제를 갖추고,⁸³⁾ 중대 초에는 중앙집권적 관료조직을 완성하였다.⁸⁴⁾ 이에 따라 《三國史記》직관지에서 보듯이 중대 도성에는 執事省, 兵部, 調府 등 무수한 관아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京中諸曹’라는 표현은 이를 반영한다.⁸⁵⁾

그러면 이들 관아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었을까? 唐의 長安城처럼 宮城 남쪽에 별도로 皇城이라는 관아구역을 조성하였을까?⁸⁶⁾ 아니면 일본의 平城京·平安京처럼 朝

81) 최근 국립경주박물관 부지에서 南宮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南宮之印’ 銘기와편이 출토되었다(경주국립박물관, 2002 《문자로 본 신라》 70쪽 및 91쪽).

82) 《三國史記》職官志2 內省조에 따르면 月城 내에는 위의 전각, 성문, 무각 외에도 內省 산하의 여러 관서나 작업장이 배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국가의례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기 때문에 본고의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론하도록 하겠다.

83) 金瑛河, 1988 《新羅 中古期の 政治過程 試論》《泰東古典研究》4

84) 李基東, 1980 《新羅 中代の 官僚制와 骨品制》;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潮閣

85) 《三國遺事》紀異2 文虎王法敏초

86) 考古研究所西安唐城發掘隊, 1963 《唐代長安城考古紀略》《考古》1963-11
楊寬, 1993 앞의 책, 169-171쪽

元殿-正殿을 중심으로 왕궁 가장자리에 배치하였을까?⁸⁷⁾

下代の 기록이지만 調府에 화재가 났다는 기사⁸⁸⁾ 調府가 별도의 공간에 독립 건물을 보유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중하대에 호랑이가 여러 차례 도성을 침입하였는데, 침입 장소로 大宮庭이나⁸⁹⁾ 宮庭⁹⁰⁾ 등을 들면서 이와 별도로 執事省을 명기하고 있다.⁹¹⁾ 執事省의 위치를 정확히 비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大宮·宮과 구별되는 장소 곧 王宮 외부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관아의 위치와 관련하여 月城 北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문왕의 納妃禮를 거행할 때 왕비는 北門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갔다.⁹²⁾ 또한 성덕왕은 백관에게 北門으로 들어와 上奏하도록 下敎하였다.⁹³⁾ 이러한 사례는 월성의 정문이 北門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지형상 월성 남쪽이 河岸段丘로서 정문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그런데 도성 전체로 보더라도 남쪽에는 험준한 南山이 있어 정문을 설치할 수 없었다. 반면 유학승이나 외국사절을 興輪寺 前路에서 맞이한 사례에서⁹⁴⁾ 보듯이 서천의 金橋 동쪽에 위치한 興輪寺 前路가 西川을 건너 도성 중심지로 향하는 진입로였다. 경주분지의 지형조건으로 인해 중대 도성 전체의 정문은 서문, 왕궁의 정문은 북문이었던 것이다. 이는 도성과 왕궁의 정문이 모두 남쪽에 위치하였던 중국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은 관아의 위치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정문을 설치할 수 없는 월성 남쪽의 南川 맞은편에 관아를 배치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반면 왕궁 외부에 관아를 배치하였다면 실질적인 정문인 北門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위치를 선정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문왕이 武平門에서 赦宥禮를 거행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⁵⁾ 중국 도성의 성문 가운데 武平門이라는 명칭은 확인되지 않지만, 武朔門, 玄武門, 宣武觀 등 '武'자와 관련된 성문은 모두 북문에 해당

87)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97 《都城における行政機構の成立と展開》(古代都城制研究集會第2回報告集)

88) 《三國史記》新羅本紀11 문성왕 14년 2월

89) 《三國史記》新羅本紀7 문무왕 13년 6월

90) 《三國史記》新羅本紀11 현강왕 11년 2월

91) 《三國史記》新羅本紀9 해공왕 6년 4월 29일조

92) 《三國史記》新羅本紀8 신문왕 3년 2월

93) 《三國史記》新羅本紀8 성덕왕 33년 1월조

94) 《三國史記》新羅本紀4 진흥왕 10년 춘 및《三國遺事》권3 興法 3 前後所將舍利

95) 《三國史記》新羅本紀》경문왕 1년 3월조

한다.⁹⁶⁾ 이는 북문에 황제의 禁衛軍이 주둔하고, 오행사상에서 북방 수호신을 ‘玄武’로 설정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경문왕이 赦宥禮를 거행한 武平門은 일단 월성의 북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唐의 赦宥禮는 太極宮 남문인 承天門 바깥의 朝堂 남쪽에 죄인을 모아놓은 다음, 황제가 承天門에 들어하여 赦免을 선포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⁹⁷⁾ 唐의 承天門은 황제가 직접 들어하여 황제의 덕을 과시하고, 정통성을 확인하는 의례를 수행하던 장소로서 3朝 가운데 外朝의 正殿에 해당한다. 그리고 承天門 남쪽에는 각종 대규모 의례를 거행하던 대규모 광장인 橫街를 사이에 두고 관아지구인 皇城이 자리 잡고 있었다(〈그림 2〉 참조).

일본에서는 7세기 후반 藤原京 단계까지는 왕궁의 大極殿 앞의 朝堂院에 죄인을 모아놓고 천황이 大極殿門에 들어하여 赦宥禮를 거행하다가, 大寶令 반포 이후 이를 폐지하고 太政官의 주관 아래 관아별로 거행하였다.⁹⁸⁾ 즉 천황이 출어한 大極殿門은 唐 長安城의 承天門, 朝堂院은 태극궁 남쪽의 橫街와 皇城에 각각 대비된다. 관아지구가 왕궁 내부에 위치하였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안고 있었지만, 內朝(兩儀殿)-中朝(太極殿)-外朝(承天門)-광장·관아(橫街·皇城)라는 당 장안성의 구조가 일본 고대 도성에서도 內裏正殿-大極殿-大極殿門-朝堂院이라는 형태로 재현되었던 것이다(〈그림 2〉 참조). 그리고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外朝에 해당하는 大極殿門-朝堂院에서 赦宥禮를 거행하였다.⁹⁹⁾

이상을 참조하면 赦宥禮가 거행된 武平門은 長安城의 承天門이나 일본 고대 도성

96) 前漢 長安城의 서쪽 북문인 橫門은 光門·武朔門(237쪽), 後漢 洛陽城 北宮의 북문은 玄武門(135쪽), 東吳 建業城 皇宮의 북문은 玄武門(160쪽), 東晉 建康城 북쪽 호수는 玄武湖(165쪽), 唐 長安城 宮城의 北門은 玄武門(170쪽)이다(楊寬, 1993 《中國古代都城制度史研究》 上海古籍出版社). 또한 北魏 洛陽城 북벽 중앙에는 성문 대신 ‘宣武觀’을 설치하고 성벽 외곽에 군사조련장인 ‘宣武場’을 두었다(楊俊 撰, 周祖謨 校釋, 2000 《洛陽伽藍記校釋》 上海書店出版社, 178-179쪽 및 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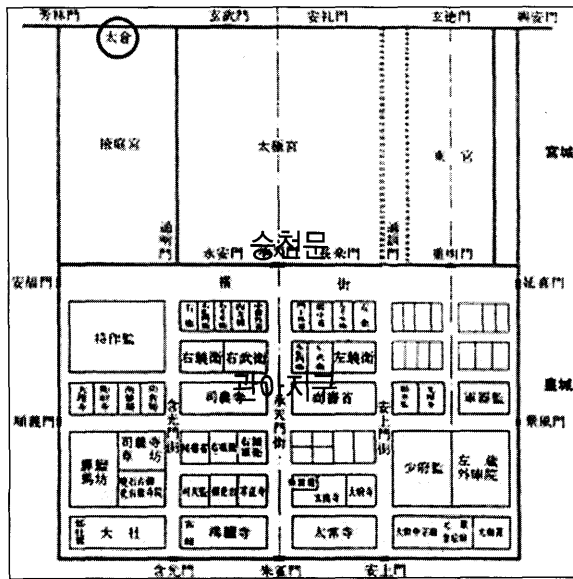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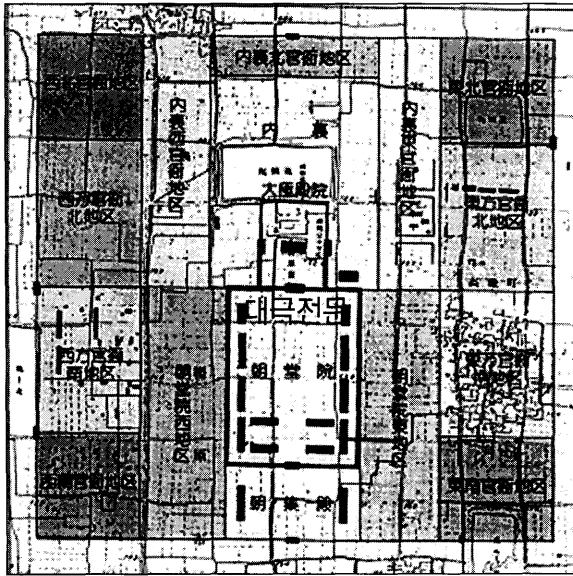
97) 《大唐六典》 尚書工部 郎中員外郎조: “若元正冬至大陳設, 燕會, 赦過有罪, 除舊布新, 受萬國之朝貢, 四夷之賓客, 則御承天門以廳政(蓋古之外朝也).”

98) 《續日本記》 大寶元年 11월 乙酉조

99) 佐竹昭, 1998 《藤原宮の朝廷と赦宥儀禮—古代宮室構造展開の一試論》 《日本歷史》 478, 1-5쪽

한편 위의 글에 따르면 唐 長安城의 橫街에는 일반민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고, 唐 황제가 승천문에 들어하여 사유례를 거행하며 일반민에게 직접 덕을 과시하였다고 이해하였다. 반면 일본의 大極殿門-朝堂院은 왕궁 내부에 위치하여 일반민이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황의 덕을 과시한다는 赦宥禮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정무 장소에 죄인이 출입함으로써 관인과 위화감을 조성하였다고 보았다. 大寶令 반포와 함께 大極殿門-朝堂院에서의 赦宥禮를 폐지한 것은 태극전과 조당원이 왕성 내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림 2) 일본 藤原宮과 唐 長安城 皇宮의 평면도



의 大極殿門 곧 外朝의 正殿에 해당한다. 長安城이나 일본 고대 도성에서 外朝의 正殿 바깥쪽에 관아지구인 皇城·朝堂院이 위치한 사실을 고려하면, 신라 중대 도성에서도 武平門 곧 월성 북문 바깥쪽에 관아가 위치하였고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月城 天尊庫의 위치가 주목된다. ‘宮城 南庫’라고 불린데서 보듯이 100) 月城 天尊庫는 월성 남부에 위치하였다. 그런데 唐 長安宮의 太倉이나 일본 平安宮의 兵庫寮는 101) 모두 宮城 정문의 반대편인 북쪽에 위치하였다. 이를 참조하면 天尊庫가 위치한 月城 남부는 월성 정문의 반대편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즉 월성의 정문은 북쪽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武平門 부근에는 觀射禮를 거행할 정도로 102) 唐 長安城의 橫街나 일본 大極殿門의 앞마당처럼 상당히 넓은 광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최근 고고학 발굴성과에 따르면 월성 북쪽에서 첨성대~안압지에 이르는 지역에서 일반 민가와 다른 특수한 형태의 건물유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103) 北門이 月城의 정문이고 外朝의 正殿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연결시켜 본다면 북문 외곽 곧 월성 북쪽에 관아지구를 배치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그림 3) 참조. 104) 이처럼 월성 북문 바깥쪽에 관아가 위치하였기 때문에 성덕왕은 백관에게 北門으로 들어와 上奏하도록 下教하였다고 추정된다.

이처럼 왕궁과 관아가 별도의 장소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신라 중대 도성의 공간 구조는 궁성 내부에 관아가 위치한 일본 고대 도성보다는 궁성·황성이 분리된 당 장안성에 가까운 형태이다. 다만 內朝-中朝-外朝-관아지구가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남쪽의 왕궁에 內朝-中朝, 왕궁 북문과 외곽에 外朝-관아지구가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기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105) 또한 관아지구로 추정되는 월성 북쪽 일대도 그 동편에 臨海殿이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王宮의 경역으로 인

100) 《三國史記》新羅本紀12 경명왕 5년 1월조

101) 佐藤信, 1997 앞의 책, 5쪽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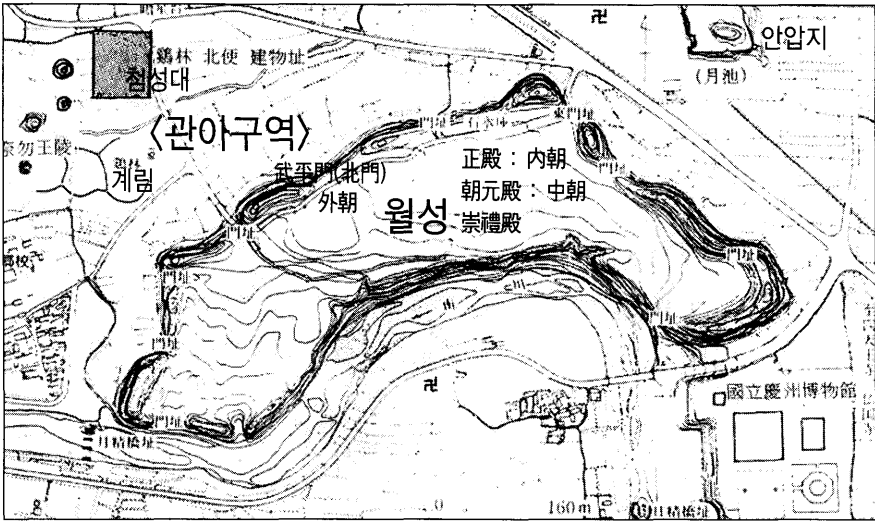
102) 《三國史記》新羅本紀10 흥덕왕 9년 9월조

10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2~1994 〈1992~1994년도 월성해자 발굴조사〉 《年報》 3~5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90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 I

104) 金洛中, 1997 앞의 논문, 66~68쪽에서는 월성을 둘러싼 방형의 관청가를 설정하였다. 이에 비해 朴方龍, 1998 앞의 논문, 215~218쪽에서는 월성 외곽의 중심 궁궐지로 보았다.

105) 月城 北門 외곽에 관아지구가 별도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月城 내부에도 관아건물이 상당수 존재했을 것이다. 월성

〈그림 3〉 月城 주변의 지형과 전각, 관아 배치 추정도



식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왕궁의 전각이 배치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⁰⁶⁾

도성 전체를 놓고 보면, 신라 중대의 왕궁과 관아는 월성과 그 북쪽 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다른 지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수한 구역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당 장안성의 궁성과 황성이 북부 중앙에 배치된 것이나, 일본 平城京·平安京의 왕궁 내부에 여러 전각과 관아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은 중고기 이래 정치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분산되어 있던 여러 의례공간과 정무장소를 왕궁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 결과로 추정된다.¹⁰⁷⁾ 따라서 월성의 남북에 배치된 왕궁과 관아지구는 신라 중대 도성의 공간적 위계구조를 형성하는 출발점으로서 그 정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에서 출토된 '官' 銘 암키와는 이를 시사한다(국립경주박물관, 2002 《문자로 본 신라》, 91쪽).

105) 月城 北門 외곽에 관아지구가 별도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月城 내부에도 관아건물이 상당수 존재했을 것이다. 월성에서 출토된 '官' 銘 암키와는 이를 시사한다(국립경주박물관, 2002 《문자로 본 신라》, 91쪽).

106) 최근 왕궁지역을 월성 북쪽의 침성대~안압지까지 포함하여 설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朴方龍, 1998 앞의 논문, 209~218쪽). 어쨌든 滿月城이나 北宮의 위치를 비정할 때 이러한 측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7) 日本의 경우 7세기 중반까지는 의례공간이 산재되어 있다가 藤原京을 건설하면서 왕궁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仁藤敦史, 1998 《倭京から藤原京へ》《古代王權と都城》吉川弘文館).

4. 國王의 行幸과 典京府

1) 國王의 行幸과 여러 의례공간

도성에서 왕궁과 관아 다음으로 중요한 건축물은 불교사원일 것이다. 불교사원은 중고기 이래 도성을 장엄하던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다. 여러 연구자에 의해 밝혀졌듯이 중고기에 조영된 황룡사지는 里坊구획 4구역, 분황사지나 영묘사지(전흥륜사지)도 里坊구획 1구역 등 里坊구획을 단위로 부지를 선정하고 전각을 배치하였다. 이는 불교사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영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도성의 공간구조를 고려하면서 계획적으로 배치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중고기에는 주요 사원을 도성 중심부의 가장자리에 배치함으로써 喙部·沙喙部 지역을 불교적으로 성역화하고, 이를 통해 喙部·沙喙部 출신이 정치권력을 독점한 중고기 정치체제를 공간상으로 구현하고, 경주시 전역에 걸친 광역 王京制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¹⁰⁸⁾

唐의 貞觀禮를 준용하여 중국식 祭場을 도성 가장자리에 배치하여 王京·王畿制를 확립한 중대 이후에도 불교사원은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조영되고 관리되었다. 四天王寺成典을 비롯하여 奉聖寺成典, 感恩寺成典, 奉德寺成典, 奉恩寺成典, 靈廟寺成典, 永興寺成典 등 국가의 공식관서인 사원성전이 주요 사찰에 설치된 사실은 이를 반영한다.¹⁰⁹⁾ 불교사원의 전각이나 탑과 관련된 기록이 《삼국사기》에 다수 등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또한 東海口에 위치한 感恩寺를 제외한 다른 성전사원은 대체로 里坊區劃이 시행된 도성 내부나 그 부근에 자리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¹¹⁰⁾ 이는 중대 이후에도 불교사원이 도성을 장엄하고 국가의례를 거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08) 余昊奎, 2002 앞의 글 참조.

109) 《三國史記》職官志 상의 寺院成典조

李泳鎬, 1983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한국사연구》 43

蔡尙植, 1984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110) 사천왕사는 남산 남쪽, 영묘사는 남천 북안의 전흥륜사지, 영흥사는 서천 동안의 폐사지 등으로 각각 비정된다. 봉덕사도 고려시기 복천의 범람으로 매몰되었다는 기록《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 고적조》으로 보아 복천 부근으로 비정할 수 있다.

下代の 국왕들은 感恩寺, 皇龍寺, 三郎寺 등 여러 사원에 行幸하여 百高座會와 看燈式 등의 법회를 개최하였다.¹¹¹⁾ 그런데 성덕왕이 태종대왕을 위해 봉덕사를 창건하고 7일간 仁王道場을 개최한 기록을 비롯하여¹¹²⁾ 경덕왕이 백률사에 遊幸한 기록,¹¹³⁾ 향룡사에 駕幸한 기록¹¹⁴⁾ 등으로 보아 중대의 국왕도 주요 사원에 자주 行幸하여 법회를 개최하였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行幸은 국왕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왕의 불교사원 행행에는 百寮·文臣으로 표현된 여러 관인이 수행하였고, 법회 다음에는 관인들이 참여하는 宴會나 詩會가 열렸다.¹¹⁵⁾ 法會가 끝난 다음 연회·시회를 여는 것은 왕궁에서 공식적 국가의례가 끝난 다음 연회를 개최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이다. 국왕의 불교사원 行幸은 사적 차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거행된 국가의례의 일종이었던 것이다.¹¹⁶⁾

중하대의 국왕은 불교사원뿐 아니라 유교교육기관인 國學(太學)에도 行幸하였다.¹¹⁷⁾ 국왕의 國學(太學) 행행은 중고기 말 이래 유교적 정치질서를 추구한 것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國學은 다른 관아와 구별되는 장소에 위치하였다. 중국의 경우, 太學(國子堂)이 前漢代에는 皇宮 正南門인 安門의 바깥 동쪽, 後漢代에는 皇宮 동쪽 南門인 開陽門의 바깥 동쪽, 北魏대에는 洛陽城 皇宮 정남문 바깥의 銅駝街 동쪽 등에 각각 위치하였다.¹¹⁸⁾ 또한 일본 平安京의 경우, 大學寮가 平安宮 정문인 朱雀門 바깥의 朱雀大路 동쪽에 위치하였다.¹¹⁹⁾

중국이나 일본 모두 太學·大學寮가 왕궁·황성에 위치한 다른 관아와 달리 도성의 중심 대로변에 위치한 것이다. 신라의 경우도 국왕의 國學(太學) 방문을 특별히

111) 특히 하대의 왕들은 주로 皇龍寺에 행행하여 百高座會와 看燈式을 거행하였다(선덕왕 5년 3월, 경문왕 6년 1월 15일, 현강왕 2년 2월, 동왕 12년 6월, 정강왕 2년 1월, 진성왕 1년, 동왕 4년 1월 15일, 경순왕 즉위년).

112) 《三國遺事》紀異2 성덕왕조

113) 《三國遺事》권3 塔像4 栢栗寺조

114) 《三國遺事》권4 義解5 賢瑜珈 海華嚴조

115) 《三國史記》新羅本紀11 경문왕 6년 1월 15일조: “幸皇龍寺看燈, 仍賜燕百寮.”
《三國史記》新羅本紀11 현강왕 9년 2월조: “王幸三郎寺, 命文臣, 各賦時一首.”

116) 李泳鎬, 1983 앞의 글, 111~113쪽 및 蔡尙植, 1984 앞의 글, 89쪽
尹善泰, 2000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 108, 55쪽

117) 《三國史記》新羅本紀 혜공왕 1년, 동왕 12년 2월, 경문왕 3년 2월, 현강왕 5년 2월

118) 楊寬, 1993 《中國古代都城制度史研究》上海古籍出版社, 112쪽 및 136쪽의 도면
楊銜撰, 周祖謨 校釋, 2000 《洛陽伽藍記校釋》上海書店出版社의 부록 도면

119) 山中章, 1997 《平安京の條坊制と官衙町》 《日本古代都城の研究》柏書房, 158쪽

‘行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월성 북쪽의 관아지구가 아니라 그 바깥쪽의 대로 변에 위치하였다고 추정된다. 국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덕왕 20년 內省 산하에 국학과 구별되는 ‘所內學生’을 설치한 것도¹²⁰⁾ 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국왕의 國學 行幸 시에도 불교사원에 행행할 때와 유사한 의례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중대의 국왕들은 왕궁이나 관아지구뿐 아니라 그 바깥쪽에 위치한 불교사원이나 국학에 직접 行幸하여 공식적인 국가의례를 거행하였다. 국왕의 행행을 매개로 불교사원이나 국학도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공간으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국왕이 불교사원이나 국학에 행행하는 과정도 공식적인 국가의례 절차에 준하여 시행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는 국왕이 왕궁을 출발하여 불교사원이나 국학에도착할 때까지 이용하는 도로망도 의례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신문왕이 왕비를 맞이할 때, 왕비의 생가에서 王宮에 이르는 구간에서 많은 관리와 梁部·沙梁部の 老嫗를 동원하여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반영한다. 실제로 문무왕 14년에 靈妙寺前路에서 閱兵式을 거행하였고,¹²¹⁾ 전술하였듯이 興輪寺前路에서는 유학승이나 외교사절을 맞이하는 의례를 거행하였다. 도성의 도로망은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또다른 의례공간이었고, 가장 핵심적인 의례공간인 왕궁·관아지구와 다른 의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계망이었던 것이다.

중대 도성에는 위와 같은 의례공간 외에도 始祖廟, 神宮, 五廟(혜공왕대 설치) 등 왕실 조상신을 제사지내던 祭場, 토지신을 제사지내던 社稷壇(37대 선덕왕대 설치) 등 국왕이 親祀하던 祭場이 다수 있었다. 이들 祭場의 위치를 정확하게 비정하기는 힘들지만, 중국의 사례로 보아 궁성 바깥의 도성 내부에 위치하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도성의 4郊에는 선농제(東郊)·중농제(南郊)·후농제(西郊)의 제장이 있었고, 도성의 모서리에도 풍백제(東北)·우사제(西南)·영성제(東南)의 제장이 있었다. 唐의 사례로 보아 국왕이 이러한 정기제사를 親祭하기도 하였을 것이다.¹²²⁾ 그밖에 비정기제사인 4城門祭, 部庭祭, 4川上祭, 日月祭, 五星祭, 祈雨祭, 4大道祭,

120) 《三國史記》職官志 中內省조: “所內學生, 聖德王二十年置.”

121) 《三國史記》新羅本紀7 문무왕 14년 9월조

122) 《三國遺事》紀異1 天賜玉帶조에 따르면 신라 왕은 郊廟의 大祀를 지낼 때 天賜玉帶를 착용하였다.

壓丘祭·辟氣祭 등의 祭場도 도성에 위치하였는데, 특히 城門祭와 大道祭는 외곽으로 나아가는 통로·도로와 연관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신라 도성에는 왕궁을 정점으로 각종 의례공간이 산재해 있었으며, 이들은 國王의 주기적인 行幸을 통해 국가적 의례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각인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질서정연한 도로망에 의해 긴밀한 연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국왕이 왕궁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공식적인 의례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도로망 자체가 또다른 의례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각 의례공간을 연계시켜 도성 전체를 왕궁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의례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게 된다.¹²³⁾ 이러한 점에서 중대 도성을 관리하던 행정관서의 성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대인들이 실제로 도성 전체를 거대한 의례공간으로 인식하였다면, 도성을 관리하던 행정관서에도 이러한 면모가 담겨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大日任典과 典京府의 성격

《삼국사기》직관지에 따르면 신라의 도성을 관리하던 행정관서는 대체로 6部小監典, 典邑署, 典京府(典邑署+大日任典: 경덕왕대)로 변천하였다. 그밖에 도성과 관련된 관서로는 도성 내의 각종 토목공사를 담당하던 京城周作典(경덕왕대 修城府로 개칭), 시장을 관리하던 東市典·西市典·南市典, 그리고 역을 관리하던 京都驛 등이 있었지만 특수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이기 때문에 본고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부소감전은 각 部別로 관원의 수가 정해져 있고 梁部·沙梁部の 격이 다른 部보다 높고 관원도 많은 데서 보듯이¹²⁴⁾ 중고기 경주시 전역에 걸쳐 분포했던 광역의 6

123) 이와 관련하여 최근 神文王代에 구축된 成典寺院 체제를 國家儀禮와 연관시켜 파악한 견해가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四方官道の 출발점에 成典寺院을 배치하고, 이곳에서 각 지방의 中祀와 연관된 儀禮를 거행함으로써 王京을 전하의 중심이자 전체를 상징하는 의례공간으로 창출했다는 것이다(尹善泰, 2002 <新羅 中代의 成典寺院과 國家儀禮> 《신라 금석문의 현황과 과제》(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3호), 93~117쪽). 成典寺院에서 中祀와 연관된 儀禮를 거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지만, 王京을 國家儀禮의 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견해라 하겠다.

124) 《三國史記》職官志 상: “六部少監典(一云六部監典), 梁部·沙梁部, 監郎各一人, 大奈麻各一人, 大舍各二人, 舍知各一人, 梁部史六人, 沙梁部史五人, 本彼部, 監郎一人, 監大舍一人, 舍知一人, 監幢五人, 史一人, 牟梁部, 監臣一人, 大舍一人, 舍知一人, 監幢五人, 史一人. 漢祇部·習比部, 監臣各一人, 大舍各一人, 舍知各一人, 監幢各三人, 史各一人.”

部王京을 관리하던 행정관서이다. 6부소감전이 증고기에 실재한 사실은 <남산신성비 제3비>(591년)의 ‘喙部主刀里受作廿一步一寸部監’이라는 명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¹²⁵⁾ 典邑署는 중대 이후 王京의 범위가 里坊區劃이 시행된 경주분지로 축소되고 경주시 외곽의 각 部도 경주분지의 왕경지구로 이치됨에 따라 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종전의 6부소감전을 단일한 행정관서로 개편한 것으로 이해된다. 각 부별로 정해져 있던 관원의 수를 통합하여 규정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¹²⁶⁾ 이처럼 6부소감전이나 전읍서는 증고기나 중대에 왕경을 관리하던 행정관서이다.¹²⁷⁾

그런데 경덕왕대에 중앙의 정치제도와 지방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도성을 관리하던 행정관서도 새롭게 재편하였다. <삼국사기>직관지에 따르면 경덕왕대에 大日任典을 典京府에 통합하였다고 하는데, 동시기에 典邑署의 명칭을 典京府로 개칭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大日任典과 典邑署를 통합하여 典京府를 설치하였다고 보인다.¹²⁸⁾

중대 초에 각 部別로 분산되어 있던 육부소감전을 통합하여 典邑署로 개편한 반면, 경덕왕대에는 다소 이질적인 大日任典과 典邑署를 통합하여 典京府를 설치한 것이다. 그렇지만 大日任典이 어떠한 성격을 지녔다 하더라도 ‘典京府’는 명칭상 도성을 관리하던 행정관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大日任典도 기능이나 성격상 도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典京府로 통합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삼국사기>직관지에 따르면 大日任典은 大都司(大典儀), 小都司(小典儀), 都事大舍(大典事), 都事舍知(中典事), 都謁舍知(典謁), 都引舍知(典引), 幢(小典事), 都事稽知, 都謁稽知, 都引稽知(或云都引幢, 或云少典引), 比伐首 등 다소 복잡한 관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大都司(大典儀), 小都司(小典儀)라는 관직의 명칭으로 보

125) 釋文은 李明植, 1992 <慶州 南山新城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126) <三國史記>職官志 상: “典邑署, 景德王改爲典京府, 惠恭王復故. 卿二人(本置監六人, 分領六部, 元聖王六年升二人爲卿), 位自奈麻至沙麻爲之. 監四人, 位自奈麻至大奈麻爲之. 大司邑六人, 位自舍知至奈麻爲之. 中司邑六人, 位自舍知至大舍爲之. 小司邑九人, 位與弩舍知同, 史十六人, 木尺七十人.”

127) 全德在, 1996 <新羅六部研究>—潮閣, 132~151쪽

128) <三國史記>職官志 상: “大日任典, 太宗王四年置, 景德王合典京府. 大都司六人, 景德王改爲大典儀, 後復故, 位自舍知至奈麻爲之. 小都司二人, 景德王改爲小典儀, 後復故, 位自舍知至大舍爲之. 都事大舍二人, 景德王改爲大典事, 後復故, 位自舍知至奈麻爲之. 都事舍知四人, 景德王改爲中典事, 後復故, 位自舍知至大舍爲之. 都謁舍知八人, 景德王改爲典謁, 後復故, 位自舍知至大舍爲之. 都引舍知一, 景德王改爲典引, 後復故, 位與弩舍知同. 幢六人, 景德王改爲小典事, 後復故, 位與調府史同. 都事稽知六人, 都謁稽知六人, 都引稽知六人(或云都引幢, 或云少典引), 比伐首十人.”

아 大日任典은 모종의 의례를 관장하던 행정관서로 추정된다.¹²⁹⁾ 실제 唐代에 禮樂, 郊廟, 社稷 등 의례 전반을 주관하던 太常寺에 謁者, 贊引 등 大日任典과 유사한 관직이 존재하였다.¹³⁰⁾

그런데 신라에는 大日任典 외에도 의례를 관장하던 여러 관서가 존재하였다. 가령 외국사절의 빈례를 담당하던 領客府에는 의례를 전담하는 司儀(舍知)라는 관직이 있었고,¹³¹⁾ 왕궁 내의 의례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內省 산하의 引道典(禮成典)에도 上引道, △位引道, 官引道 등의 관직이 존재하였다.¹³²⁾ 따라서 大日任典은 외국사절의 빈례나 왕궁 내의 의례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례를 관장하던 관서로 추정된다. 大日任典의 여러 관직은 대략 다음과 같이 5계열로 나눌 수 있다.¹³³⁾

- ① 大都司(大典儀)-小都司(小典儀)
- ② 都事大舍(大典事)-都事舍知(中典事)-幢(小典事)-都事稽知,
- ③ 都謁舍知(典謁)-都謁稽知
- ④ 都引舍知(典引)-都引稽知(或云都引幢, 或云少典引)
- ⑤ 比伐首

①이 대일임전이 관장하던 의례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면, ②는 각종 실무를 집행하였고,¹³⁴⁾ ③은 의례 가운데 ‘謁’의 기능, ④는 ‘引’의 기능을 각각 수행하였고 추정된다. 또한 ②~④ 계열에 모두 ‘幢’을 의미하는 稽知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례 거행시의 경호와 관련된 업무가 중요시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관직구성으로 보아 大日任典은 ‘謁’과 ‘引’의 기능 그리고 경호 업무가 중시되던 의례 곧 일정한 행렬을 인도하고 경호할 필요가 있던 의례를 관장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大日任典이 도성을 관장하던 典京府에 통합되었다는 사실 및 ‘大日’이 ‘국왕’의 상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왕이 행렬을 이루어 왕궁 바깥의 도성으로 行幸

129) 尹善泰, 2002 앞의 글, 106~107쪽

130) 《舊唐書》권24 職官3 太常寺조: “丞三人, (중략) 謁者十人, 贊引二十人.”

131) 《三國史記》職官志 상 領客府조

132) 《三國史記》職官志 중 內省의 引道典조

133) 木村誠, 1983 《統一新羅の王畿について》《東洋史研究》42-2, 49-50쪽

134) 木村誠, 1983 앞의 글, 49-50쪽에서는 도성의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았다.

하던 의례를 관장하였다고 추정된다.

앞장에서 검토하였듯이 중대 도성에는 각종 의례공간이 산재해 있었고, 이들은 질서정연한 도로망에 의해 긴밀한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도로망 자체가 또 다른 의례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도성 전체를 왕궁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의례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따라서 大日任典이 각종 의례를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해서는 도성을 관리하는 행정관서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도성을 관리하던 典邑署도 일반행정 외에 국왕의 행행 등과 관련된 업무가 수시로 하달되었을 것이다.

이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덕왕대에 도성의 일반행정을 담당하던 典邑署와 도성에서 거행된 국가의례를 주관하던 大日任典을 통합하여 典京府를 설치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렇지만 과연 업무상의 효율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관서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 고대의 경우 京職의 관장 업무 가운데 의례와 관련된 것은 없으며,¹³⁵⁾ 唐의 경우에도 도성 내외에서 행한 각종 의례는 太常寺가 주관하고 행정관서인 京兆府는 牧民과 관련된 업무만 관장하였다.¹³⁶⁾

典邑署와 大日任典을 하나의 관서로 통합하는 데에는 업무상의 효율성 외에 또 다른 배경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왕궁을 정점으로 하는 도성 내부의 여러 의례공간이 질서정연한 도로망에 의해 긴밀한 연계망을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라 중대인들이 도성 자체를 의례공간으로 인식하던 관념을 들 수 있다. 즉 국왕의 행행을 매개로 도성 곳곳에서 이루어지던 국가의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더불어 도성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국가의례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성의 행정업무와 국가의례를 동시에 주관하는 독특한 관서인 典京府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135) 일본 平城京 左右京職의 大夫는 戶口名籍, 字養百姓, 糾察所部, 貢學, 孝義, 田宅, 雜徭, 良賤, 訴訟, 市廛, 度量, 倉廩, 租調, 兵士, 器仗, 道橋, 過所, 關遺雜物, 僧尼名籍 등을 관장하였으며, 4坊마다 설치된 坊領은 檢校戶口, 督察奸非, 催賦賦徭등을 관장하였다(《令義解》職員令66 左京職조 및 戶令3 置坊長조; 井上光貞, 1976 《日本思想大系3 律令》岩波書店, 189쪽 및 225쪽; 仁藤敦史, 1998 《京職と東西市の成立》 앞의 책, 251-258쪽).

136) 《舊唐書》권24 職官3 太常寺조 및 京兆府조

5. 맺음 말

이상에서 중대 도성의 공간범위와 구획단위, 왕궁과 관아 등 여러 의례공간의 배치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中代 都城은 비록 성곽을 축조하지 않았지만, 질서정연한 도로망에 의해 구획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을 도성의 공간범위로 설정할 수 있었고, 가장자리에 중국식 祭場을 설정하여 國城관념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중대의 정궁은 月城(在城)이었고, 여러 전각은 핵심적인 의례공간인 朝元殿-正殿을 중심으로 배치된 사실도 파악하였다. 다만 지형상 월성의 정문은 북문이었고, 赦宥禮를 武平門에서 거행한 데서 보듯이 북문이 外朝의 正殿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여러 관아는 월성 북문의 바깥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추정된다. 중대의 도성 전체에서 왕궁인 월성과 그 북쪽의 관아지구가 가장 중요한 의례공간이었던 것이다.

도성 내에는 그밖에 佛敎寺院, 國學, 여러 祭場 등 다양한 의례공간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國王의 行幸과 질서정연한 도로망을 매개로 하나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형성하여 도성 전체를 왕궁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의례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에 도성 전체를 국가의례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典畝署와 국가의례를 주관하던 大日任典을 통합하여 典京府라는 독특한 관서로 창출하였다.

典京府를 출범시킨 신라 중대인의 의도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경덕왕대에 개편한 관제를 중전대로 復故하던 혜공왕대에 典京府도 典畝署로 개칭되었다는 점에서 도성의 행정업무와 국가의례를 동시에 주관하던 독특한 관서는 소멸되었다고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도성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의례공간으로 인식하고 또 활용하려던 중대인의 꿈도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다.

혜공왕대가 중대의 끝자락이라는 점에서 典畝署와 大日任典의 복고는 당연한 조치였는지도 모른다. 왕권의 위상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國王의 行幸을 매개로 도성 전

체를 거대한 의례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典京府로 상징되는 도성의 공간적 연계망과 국가적인 의례체계는 중대 정치체제와 중대인의 정치적 지향점을 가장 농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